

#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 공개

### 부처별 개별 로고 인지도 낮아...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5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상징 디자인(안)을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공동으로 새로운 정부디자인과 향후 적용 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17일, 광복 70년을 맞아 하나 된 정부로서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상징체계 개발 및 적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은 새로운 정부상징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부처별로 개별적인 상징(로고)을 사용함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되어 예산과 행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각 부처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일관성이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중앙 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상징(로고)신설 변경(2009년 18곳, 2013년 15곳)으로 기관당 개발비만 건당 300만원~1억 2000만원이 투입됐었다.

반면 국민들은 중앙 부처 22개 상징(로고) 중 평균 0.52개 인지 단 하나의 로고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있다.

특히, 일반인의 88.9%는 통합된 정부상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이 국민과의 소통, 부처 간 협업 정부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정부상징체계를 통합·정비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정부상징과 관계없는 부처별 상징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등 6개국이다.

이번에 공개한 정부상징 디자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공동 단장 장동원 교수, 우상

일 문체부 예술정책관, 이하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됐다.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와 국민 인식조사, 국민 아이디어 제안 및 전시회 개최, 전문사업단 공모 등을 거쳐 기본디자인(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협업체(위원장 장관주 문체부 차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완성됐다.

### ◆태극기의 청·홍·백 조합 '대한민국다움' 극대화

'국가 상징'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집포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다.

'정부 상징'은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나라 문장 아래 3부(입법 사법 행정)를 표상하는 상징이 별도로 존재한다. 3부의 상징중에서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을 '정부 상징'이라고 한다.



지난 1년간 추진단은 우리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 '태극'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상징 디자인을 수정·보완해 왔다.

상징 소재 적합한 조사결과 '태극'이 1위로 나타났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5년 3월~5월)에서도 '태극' 활용 제안이 가장 높은 비중(24.4%)을 차지했다.

새로운 정부상징은 태극기의 청·홍·백 삼색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표현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열린 조형성을 통해 국민과 세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부상징 글꼴은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태극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상징의 권위를 뒷받침했다.

/정해은 기자

## '뷰티풀 민트 라이프' 2차 라인업 확정

정준일 노리플라이, 손애플 글랜체크, 선우정아 등이 5월 14~15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봄 음악축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6'에 출연한다.

주최사 민트페이퍼의 2차 라인업에 노리플라이 탈라스, 임현일, 몽니 등 페스티벌 단골 아티스트뿐 아니라 신세하, 룡디, 위아다나잇, 신현화김보트, 호소, 전자양 등 음악인을 견인할 신예까지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아티스트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트페이퍼는 브로콜리나미저, 제이레빗, 페퍼톤스, 데이브레이크, 10cm, 소란, 이지형, 김시월, 안영하신가영, 옥상달빛, 로이킵, 빌리어코스티, 마이큐, 정재원, 페이퍼트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1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다음달 5일 최종 라인업을 확정한다.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원광대 개교 70주년 기념 '한국 민주주의 대전환' 주제 김중철 초청 토크쇼 개최

###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피칭프로젝트 선정 15편 발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5일 제8회 전주프로젝트마켓(JPM) 피칭 프로젝트를 선정해 15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이번 피칭 공모에는 총 141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극영화 49편, 다큐멘터리,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 부문에 각각 5편이 선정됐다. 참신한 장편 극영화 발굴이 목적인 '극영화 피칭'에는 '시인의 사랑' '오리의 웃음' '우정이 불타고 있다' '항길, 불타는 도시' '칠할남아' 등 시나리오 완성도가 높다는 평을 받은 5편이 뽑혔다.

이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작품은 영화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이틀간 투자사와 제작사 등 영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피칭 무대에서 소개된다.

/정해은 기자

### 신인무용가 우진문화공간서 데뷔

2016 신인출판, 춤, 신예의 데뷔가 오는 28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공연엔 우진문화재단이 발굴한 신진 무용가 김미선(한국무용), 홍익현(한국무용), 황지해(현대무용) 3인이 '환상·불꽃이 되어', '갈날 끝에 앉은 나비', 'Duplicity'를 주제로 해 각기 팀을 이뤄 무대에 오르게 된다. 관람료는 전석 1만5천 원이며, 문의는 272-7233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중 총장)은 오는 17일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김중철 녹색평론 발행인(사진)을 초청해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크쇼를 개최한다.

원불교 100주년 및 원광대 개교 7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토크쇼는 김중철 박사를 비롯해 이재봉, 박맹수 원광대 교수가 대담자로 나선다.

194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김중철 박사는 현재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녹색평론>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등에 관한 왕성한 집필활동을 통해 우리 시대 대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중철 박사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국가의 쇠퇴와 개혁>,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원점에서 생각하는 민주정치>, <세월호 1년, 자본주의 국가와 민주주의의>,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해방 70년, 전후 70년에 생각하는 '일본 문제'>, <땅의 응호>, <건디의 물레>,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녹색평론 선집>, <발언> 등이 있다. 정치 및 민주주의에 관한 건강한 담론의 공유는 시민의식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토크쇼는 17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익산 및 전주, 군산 등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한편,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오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불교 100주년과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종교·문명의 대전환과 큰 작공을 주제로 종교·정치·경제·생명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정왕원 기자



모던테이블은 장르 간 열린 작업을 통해 관객과 교감을 시도해 온 댄스그룹이다.

## 아쟁 선율과 동해안별신굿 그리고 현대무용

### 그룹 모던테이블 '탈다' 공연

아쟁의 극적인 선율과 동해안 별신굿의 변화무쌍한 장단이 현대무용과 어우러진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이 18일 오후 8시 풍류사랑방의 '금요공강' 무대에서 현대무용 안무가 김재덕이 이끄는 '모던 테이블'의 '탈다' 공연을 선보인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아쟁 명인 김영길과 동해안별신굿의 명맥을 잇고 있는 김정희 명인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탈다'는 육신의 때와 세상의 먼지 등을 털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움직임의 상징화한다. 풍어를 기원하며 부정을 털어내고 축원과 덕담을 통해 마음의 축제로 흥겨

움을 더했던 동해안별신굿의 모티브가 더해진다.

모던테이블은 장르 간 열린 작업을 통해 관객과 교감을 시도해 온 댄스그룹이다. 컨템포러리 댄스를 중심으로 뮤지컬, 판소리, 록, 힙합 등 장르의 경계를 두지 않는 작업을 추구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 안무가 김재덕은 2008년 '다크니스 폼바'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웨이크(Awake)', '킥(Kick)', '심청 가이즈(Simchung Guyz)' 등 국내외 초청 공연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혔다. 모던테이블의 대표이자, 싱가포르의 무용단 '더 댄스 컴퍼니'의 초빙안무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쟁 선율을 전한 김영길 명인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이다. 한국아쟁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이네딕 레이블에서 발매한 '김영길의 아쟁산조' 음반으로 2013년 프랑스 아카데미 사를 크로 월드뮤직상을 받았다. 깊고 애절한 아쟁 소리의 특징을 살린 산조와 시나위 등에 정통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즉흥 연주를 선보인다.

동해안별신굿의 신들린 장단으로 무대에 강렬한 호흡을 불어넣을 김정희 명인은 4대째 세습무를 이어오고 있는 화랑이(굿을 할 수 있는 동해안별신굿의 악사)로 별신굿 음악의 예술성을 끌어올린 주인공이다.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gugak.go.kr)와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 또는 전화(02-580-3300)로 예약할 수 있다. 2만원 /정해은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16일>

**▷쥐띠**  
46년생: 문서에 결실이 들어온다. 문서계약 및 일이 있으면 계약하라.  
80년생: 손아래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  
72년생: 천운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일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84년생: 이성을 조심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리니 주의하라.

**▷소띠**  
48년생: 일의 결실을 맺으려면 뒷심을 잡지 말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 할 운을 잊지 마라.  
81년생: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마라.  
73년생: 중요한 불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따르는 운.  
89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뭄으로 향한다.  
83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86년생: 먼저 배울고 덕을 쌓아라.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85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니 결손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75년생: 매사에 주의의 기운이 있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86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8년생: 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는 운이나 뒷 사람에게 실수 안 수 있으니 주의하라.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정심시간을 관용하라.  
87년생: 소위된 사람에게 신임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88년생: 언쟁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결손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이 좋아지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좋은 운.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심상이 전반적으로 악화 있으니 조심하라.  
89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나 금전운은 불리하다.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후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원숭이띠**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80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큰일은 불리하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다.  
92년생: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근 부르고 실수를 저지르게 하니 마음을 비워라.  
79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한 일이 생기는 운이니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93년생: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개띠**  
49년생: 정략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  
70년생: 동기인사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이니 주의하라.  
9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소홀했던 사람들의 관계 회복에 힘쓰면 좋은 운.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얌전한 실리대가 불리는 운이다.